

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2023. 1. 6.(금) 10:00 < 1.6.(금) 석간 >	배포 일시	2023. 1. 6.(금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 여수향 (044-203-4332)
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 이승현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원 (02-2110-4067)

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 발표

□ 현황

-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, '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,000여명이 부족할 전망(조선협회)

* 국내수주량(만CGT): ('19) 1,006 → ('20) 827 → ('21) 1,746 → ('22) 1,559

* 고부가(58%)·친환경(50%) 선박 시장점유율 1위

-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'22.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,673명이 통과하였고, 고용추천은 1,621명 완료

－ 고용추천 1,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(법무부, '22.12.12 기준) 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

< 직종별 E-7 도입현황('23.1.4) >

구분	용접공	도장공	전기공	플랜트공	합계
기량검증* (현지)	3,673	-	-	-	3,673
예비추천 (조선협회)	703	742	262	234	1,941
고용추천 (산업부)	439	734	225	223	1,621
비자발급** (법무부)	48	184	90	90	412

* 기량검증은 현재 용접공에만 실시하고, 도장공, 전기공, 플랜트공은 미 실시

** '22.12.12일 기준 통계로 12.12일 이후 발급된 비자는 본 통계에 미포함

□ 개선방안

< 산업부 소관 >

- ① 예비추천 신청(도입업체) ~ 예비추천(조선협회)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**3일 이내로 단축**(조선협회)
- ② 예비추천(조선협회) ~ 고용추천(산업부)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**3일 이내로 단축**(산업부)
⇒ ① + ②를 5일 이내 처리
- ③ 조선업 밀집 지역에 '**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**'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(산업부)

< 법무부 소관 >

- ① 조선업 비자 **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(20명)** → 신속 심사제도 운영
 - 20명 규모(부산, 울산, 창원, 거제,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)의 **특별 심사지원인력**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**現 5주 → 10일 이내로 단축**
- ②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*을 **20 → 30%로 한시적(2년간) 확대**

* (현행)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(3개월 이상 근로)의 20%까지 허용
- ③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하여 E-7-3*비자 발급시 **실무능력검증을 면제** (상반기 2,000명 목표)

* (현행) 유학생이 E-7-3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실무능력검증을 거칠 필요

* (E-7-3)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, 도장공, 전기공 등이 해당
- ④ 숙련기능인력(E-7-4)에 대한 연간 쿼터를 **2천 → 5천 명으로 확대**하고, **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(400명) 신설**

* (E-7-4) 비전문인력(E-9비자)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-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

⑤ 외국인 연수제도*(D-4-6)의 E-7 전환 프로그램 신설

*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(최대 2년)

- 태국,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
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-7으로 전환하는 제도 신설

⑥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(법무부·외교부)

- 태국의 사례*를 확대하여 인니, 스리랑카,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
는 외국인력의 자격·경력·학력을 관계 당국에서 인증토록 협의

* 태국정부가 경력·자격을 직접 확인·인증하여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

— < 기대효과 > —

◇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

⇒ 현재 비자대기중인 1,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

⇒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